

† 찬미예수님

**다시한번 성탄 축하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오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시길 기도합니다.**

몇일 남지않은 올 한해, 뒤돌아보면 좋은일도 있지만, 속상하며 후회스러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우리 자신, 너무나 수고했고 대견하지 않아요? 특히, 용기내어 직면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꾸준히 노력한 스스로를 칭찬하며 올한해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음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하세요.

회장으로서의 2년 임기를 마치며 2017년도 마지막 하모니 공지를 작성합니다. 지난 2년동안 매주 공지를 작성하면서, 공동체의 새로운 단체인 하모니가 어떻게 신앙안에서 조화롭게 하나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 가르침의 작은 씨앗 한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습니다. 신부님 말씀/사목방침, 교리, 도움이되는 좋은 말씀등을 찾고, 귀담아듣고, 전하면서, 봉사/활동 및 서로의 소식을 알리면서, 매주 만나지 못해도 하느님 안에서 하나되는 장을 만들수 있기를 소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지가 너무 길어져 바쁜 생활에 읽기 버거운 분들도 계셨겠죠 ^^~

부족했지만 매주 공지 잘 읽어주신 님들, 함께 기도해 주신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해를 보내며 제가 여러모로 큰 감사를 드려야할 님들은 바로 하모니 여러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길을 함께 걸어주고, 힘과 용기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작성하는 마지막 공지라 생각하니 시원섭섭한 오묘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장단으로 활기차게 시작할 우리 하모니를 생각하면 희망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할 2018년도를 생각하면 설레고 가슴 벅칩니다. 님들도 올 한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 지으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12월 31일 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고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해체된 가정과 위기를 겪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길 청합니다.

## 2017년 12월 31일 주일 [(백)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아기는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2-40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5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36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37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38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39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래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40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충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2017년 12월 넷째주 공지입니다.

### <지난행사>

#### 성탄 축제 장기자랑 연습 (12/24 주일)

성탄 축제 장기자랑 연습이 성탄이브 주일날, 사랑방에서 있었습니다. 장시간동안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보다 재미있고 신나는 방향으로 새로운것을 즉석 시도하고 함께 맞춰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든든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 즐기며 하나되는 연습 과정에서 기쁜 성탄을 벌써 맞이하는것 같았지요. 바로 우리 안에 아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축복 가득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연습 후 맛있게 식사하고 함께 성탄전야 미사도 참례 했습니다.

#### 성탄 축제 장기자랑! (12/25 월 - 성탄절)

드디어 성탄절! 성탄 축제 각 반별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약 12개의 반/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쁘게 공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모니와 트락회가 한팀으로 출전해 '춧불하나'를 부르며 멋진 랩과 신나는 율동을 선보였고, 큰 호응과 박수와 함께 특별상 \$100도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모니와 트락회 각 \$50)

무대위의 최재훈, 장익, 전진영, 트락회 심혜란, 김강훈, 이성호, 이화영, 정승혜, 이가은, 그리고 드럼을 연주한 권창모 형제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연습에 함께해준 김정호, 김상윤 형제님들,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주며 열렬히 호응해준 류은정, 전재민, 차아름 자매님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준비에 함께하며 격려와 응원 보내 주셨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못한 모든 님들 또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쁜 성탄, 우리가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하나되어 더욱 즐겁고 뜻깊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링크입니다.

[하모니, 트락 청년회 성탄축제 장기자랑 동영상](#)

[하모니, 트락 청년회 성탄축제 장기자랑 동영상 2](#) (다니엘 형제님 유튜브)

[성탄축제 장기자랑 사진 \(연습부터 축제날까지\)](#)

=====

### <특강 말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하느님 최고의 선물>

성탄 이브였던 지난 주일의 신부님 특강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미리 알려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례와 견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례와 견진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신성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후 홀로 버려진 때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니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거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모니 소식 모음 <http://oakcc.org/harmonyArchive>

지난 목요일 [알림] 이메일 드린바와 같이 매주 하모니 이메일 공지가 '하모니 소식 모음'이란 링크로 성당 웹사이트([oakcc.org](http://oakcc.org))에 올려졌습니다. 2016년도 초, 트락회/트락Plus에서 하모니란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 우리 단체의 역사를 말해주듯, 2016년도 초부터의 모든 매주 공지가 정리되니 지난 소식/활동이 궁금한 님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소식을 다른 교우분들과도 공유해, 우리의 현황을 알리며 하모니의 발전과 홍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당 웹사이트에 하모니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주보나눔 봉사 (12/31 주일)

전진영 베로니카 자매님, 감사합니다.

## 송년 전례 안내

송년 감사 미사 : \*12월 31일 (주일) 저녁 8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2018년 1월 1일(월) 오전 11시 [의무축일]

\*12월 31일은 주일인 관계로 오전 8시, 11시 미사가 있습니다. 주일 미사는 의무입니다.

## 2017년도 마지막 회합 및 새해맞이 사랑방 대청소 (12/31 주일)

올해의 마지막날인 12/31일 주일날, 교중 미사와 친교실에서의 점심식사 후 2017년도 마지막 회합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해를 보내며 서로 만나 인사하고 하모니의 지난 한해를 돌아보는 짝하고 간략한 마지막 회합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회합 후,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 사랑방을 대청소 하였습니다. 하모니의 추억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고마운 사랑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 하모니 연말 파티 (12/31 주일)

사랑방 청소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연말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녁식사 후 담소를 나누다가, 8시 송년 감사 미사에 참여한 후, 다시 사랑방에 모여 2차 연말파티를 쭉~욱 하며 대망의 2018년도 새해 첫날을 함께 맞이 하였습니다.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인원파악이 필요하니 참석 가능한 님들은 12/29(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오후에 산책하며 자연속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희망찬 새해 함께 맞이해요~ **편안한 복장 및 신발 준비하세요\***

## 청년 피정 및 하모니 입회식 (1/13토-1/14주일)

2018년도 청년 피정에 참석할 분들은 회장단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로스 알토스에 위치한 평화로운 피정 센터에서 말씀과 묵상, 기도와 함께 주님안에서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피정을 마치며 트락회에서 하모니로 입회하는 1988년생들의 축하식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강수영 루시아 자매님께서 청년 피정을 위한 후원금 \$100을 주셨습니다. 피정 준비에 감사히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름표

서로의 이름과 세례명을 알고 불러주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서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특히 **주보 봉사시**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세요.**

## <리마인더>

- **\*관심 영적자료 구입\***: 걷기행사 후원금으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교육자료를 마련해 사랑방에 비치하고 공유하며 대여도 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영적 교육자료 제목을 회장단에게 알려주거나 링크([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1c7wrs\\_yYBI8-pLCPIchh74/edit?usp=sharing](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1c7wrs_yYBI8-pLCPIchh74/edit?usp=sharing)) 에 올려주세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Oakland, California 94605  
6226 Camden Street